

‘국회 세종 이전’ · ‘민생지원금 25만원’ ... 여야, 막판 구애

5세 무상교육·가상자산 제도화 등 후속 공약 발표

여야는 4·10 총선을 앞둔 마지막 휴일이었던 7일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의 서울 편입·경기분도(分道) ‘원샷법’, 5세 무상교육 등 대형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가상자산 제도화, 월 3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청년패스 도입 등 굵직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번 총선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깜짝 발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 이전’이다. 한 위원장은 기존에 예정된 국회 분원뿐 아니라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끝내

고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고, 기존 여의도 국회 부지를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 추진도 한 위원장이 제시한 국민의힘 대표 총선 공약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면 서울에 편입하고, 분도를 원하면 경기도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원샷법’ 공약의 핵심이다. 한 위원장은 내년 5월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무상보육은 단계적으로 3~4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

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의 재추진,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국비로 직접 전통시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한 위원장이 강조하는 공약이다. 민주당 공약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계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가구당 평균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이 대표가 제시한 공약이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9개 국립 거점대학교가 모두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도 내놴. 비트코인 등 가

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호(수도권 3만호·비수도권 2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구도심 초·중등 폐교나 지자체 공공시설을 대학생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고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여러 대학의 ‘연합 기숙사’를 마련하겠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패스 도입도 약속했다. 월 6만5000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나 이용 횟수에 따라 이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국토교통부 ‘K-패스’보다 혜택을 강화해 청년 교통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제3지대 신당들도 ‘임팩트’ 있는 공약 발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유류세에 들어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로운미래는 ‘전국민 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와 ‘EBS교육 전면 무료화’, 생애 전(全) 주기 돌봄 정책을 담당하는 ‘돌봄청’ 설치를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분야 공약에 공을 들였다. 대학·정부 출연 연구원 R&D 연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 정부기관·병원·학교·은행 등 정보제공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 ‘케이로드’(K-Road) 도입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선언했다.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장담한 소나무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검찰 해체 정책 추진, 청와대 복원 및 윤산 대통령실 건물의 국방부 반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서울 여의도서 지지호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공원·교회 찾아 ‘한표라도 더...’ 선거일까지 72시간 총력 유세 돌입

광주 후보들 막판 지지호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6일과 7일, 광주지역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찾아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일부 후보들은 선거일 전까지 72시간 총력 유세 전에 나서서 등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후보들은 휴일을 맞아 유권자들이 많이 찾는 종교시설과 체육공원, 프로스포츠 경기장 등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정준호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72시간 총력 유세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선거구 11개 동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동남갑 정진욱 후보, 서구갑 조인철 후보, 북구을 전진수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교회와 성당 등을 찾아 미사에 참석하거나 종교 시설 일대에서 유권자들에 인사했다. 광산갑 박군택 후보는 7일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풍영정전 정화활동을 하며 유권자들과 만남을 이어나갔다. 동남을 안도걸 후보는 무등산 중심사 버스 종점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서구를 양부남 후보는 풍암체육공원을 방문했고, 광산을 민형배 후보는 첨단체육공원 족구대회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힘 있는 여당’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동남갑 강현구 후보, 서구갑 하현식 후보, 서구

을 김운 후보, 북구를 양종아 후보, 광산갑 김정현 후보는 이날 오전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도심 공원에서 표심 잡기에 힘썼다. 동남을 박은식 후보는 중심사 입구와 동명동, 광산을 안태욱 후보는 첨단호수공원과 수완지구 변화가 등 출마 선거구 내 ‘핫 플레이스’를 방문했다. 북구갑 김정명 후보는 동광동 교차로와 두암타운 사거리, 각화 농산물 시장 등지에서 교외로 나들이 가는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녹색정의당 서구를 강은미 후보와 김용재 후보도 이날 오전 종교시설을 방문한 뒤 오후에 각 출마 지역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특히 강 후보는 이날 오후 유세중 교외와 탈진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뒤 치료를 받고 곧장 유세현장으로 복귀했다. 광주 북구을을 전라지역으로 선정한 진보당 광주시당은 윤민호 후보와 함께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뒷편 산책로를 청소하며 유세를 벌였다. 새로운미래는 광주 후보 3명이 KIA 타이거즈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광산을 이낙연 후보, 북구를 박병석 후보, 광산갑 정형호 후보 등은 KIA 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 후보들도 각자의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동남을 장도국 후보는 이날 오후 충장로에서 ‘청년 후보’임을 강조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서구를 최현수 후보와 북구를 김원갑 후보도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만났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재명 “회초리도 안되면 권력 뺏어야”

민주당 대표, 인천 계양을 지역구 유세... “선거, 왕 뽑은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7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뺏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 현장에서 “충직하지 못한 일꾼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행동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들은 반드시 국민을 배신한다”며 “국민이 말한 권력으로 그들이 한 행위를 보시라. 그들은 우리 국민이 힘들어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그러면서도 소수 부자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지적했다. 또 “고속도로의 위치를 바꿔서 자신들의 땅 투기에 도움이 되게 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것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의 땅 투기를 위해 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다. 우리는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게 아니다. 우리는 통치할 지배자를 뽑은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은 것”이라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들은 해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권력자는 교만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자는 한 뿌리 875원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호하다 보니 마치 왕이나 신이나 된 것처럼 착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이 말한 그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라”며 “외교 망신, 국격 훼손,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까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주권을 포기하면 가장 저질의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플라톤이 말했다. 어느 쪽이든 꼭 투표하시라”고 독려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련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지정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